



연이를 안타·타점·호수비
강정호 'ML 드림' 가속도

2면

프로야구 경기 결과 23일 (22시 00분 현재)

한화	2	잠실	5	LG	두산	7	목동	5	넥센
SK	3	수원	2	kt	삼성	14	마산	4	NC
롯데	6	광주 (8회말 공격중)	6	KIA					

메이저리그로 통하는 '기적의 문'

롯데 린드블럼 등 20대 ML 유망주 투수들, 왜 한국을 선택했나?



최근 외국인선수들이 20대의 나이에 KBO리그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KBO리그에서 뛰더라도 다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 조쉬 린드블럼과 브루스 레일리, KIA 조쉬 스티븐스, SK 메릴 켈리와 트레이비스 밴와트(원곡부터) 등은 올 시즌 KBO리그에서 활약하는 대표적인 20대 외국인투수들이다.

스포츠동아 DB

린드블럼, 다저스가 애지중지하던 카드 과거엔 '한국행=경력단절' 큰 장벽 인식 이젠 '한국서 성공=ML복귀'의식 변화 용병 4명 ML입성 한화 '빅리그사관학교'

1997년 11월 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현대는 투수 조 스트롱과 계약했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첫 번째 외국인선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계약조건은 연봉과 계약금을 합친 10만달러에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체재비 지원 2만달러가 전부였다. 그 때까지 단 한 번도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 못했던 스트롱의 당시 나이는 36세였다.

스트롱처럼 1998년 이후 수많은 외국인선수들이 태평양을 건너 KBO리그에서 두 번째 야구인생을 시작했다. 홀리오 프랑코(2000년 삼성) 같은 빅리그 스타플레이어 출신도 있었지만, 30대의 마이너리거들이 주를 이뤘다. 프랑코 역시 당시 39세였다. 이에 반해 20대의 젊은 선수들을 찾기로 최근까지도 매우 어려웠다. 아직 눈앞의 높은 연봉이 주는 달콤한 유혹보다는 메이저리그 진입의 꿈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경력단절'이라는 큰 장벽이 젊은 유망주들의

한국행을 가로막았다.

●1998년 30대 마이너리그 투수→2015년 20대 빅리그 유망주 투수

2015년 KBO리그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투수들의 모습은 1998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롯데 조쉬 린드블럼은 이제 28세다. 2007년 드래프트 2라운드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고, 팀이 애지중지하며 성장을 기다렸던 특급 유망주 출신이다. 린드블럼은 메이저리그 출장 기록도 110경기나 된다. 시속 154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인 만큼 상상을 뛰어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쥌 수 있는 빅리거의 꿈에 계속 도전할 만 하지만, 린드블럼은 한국행을 택했다.

올 시즌 KBO리그에는 린드블럼 외에도 미래가 기대되는 20대 외국인투수들이 많다. 브루스 레일리(27·롯데), 조쉬 스티븐스(27·KIA), 메릴 켈리(27), 트레이비스 밴와트(29·이상 SK), 타일러 클로이드(28·삼성) 등이다. 헨리 소사(30), 루카스 하렐(30·이상 LG), 찰리 쉬렉(30·NC) 등은 이제 갓 서른이다. '20대 MLB(메이저리그) 유망주의 KBO리그 접수' 수준이다. 그들은 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젊은 나이에 한국행을 택했을까. 트리플A에 있을 때와 비교해 많게는 10배나 많은 연봉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KBO리그는 더 이상 '경력단절 리그'가 아니다!

해외스카우트 전문가인 나도현 kt 운영팀장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외국인선수들에게 한국행은 메이저리그 도전의 경력단절을 의미했다. 한국에 오면 빅리그 진출의 꿈을 접는 것처럼 인식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에서 잘하면 큰 돈도 벌고, 미국에서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 구단들과 계약하는 선수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파격적인 대우로 한국행을 택한 선수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는 최근 팀을 떠난 외국인선수 4명이 연이어 다시 메이저리그에 진입하며 '빅리그 사관학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케일럽 클레이, 프랜시스리 부에노 등이 그렇다.

높은 연봉 외의 보너스도 있다. 2013년 NC에서 뛰었던 아담 윌크처럼 한국 구단이 원 소속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한 뒤 방출하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FA(프리에이전트) 신분을 얻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더 안성맞춤인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LG, 한화 잡고 5할승률 복귀

이동현 첫 S…박용택 3안타
나바로 시즌 8호…삼성 6연승



올 시즌 한화와 LG는 만나기만 하면 한국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승부를 펼친다. 한번 이기면 한번 지는 승부. 그래서 팬들은 '4월의 한국시리즈'라 부른다. 이번엔 LG가 다시 웃었다.

LG는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 어뱅크 KBO리그'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5-2로 승리해 시즌 10승10패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5할 승률에 복귀했다. LG는 전날과 똑같은 스코어로 되갚았다. 양 팀은 팀간 6차전에서 3승3패로 균형을 맞췄다. 무엇보다 6차례 싸우면서 한화 기준으로 승-패-승-패-승-패를 반복할 만큼 양 팀은 흥미로운 시즌을 펼쳐나가고 있다.

LG 선발투수 루카스는 5이닝 2실점으로 2승째(2패)를 챙겼고, 봉준근 대신 마무리로 나온 이동현은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다.

마산에선 선두 삼성이 NC를 14-4로 완파



이동현

하고 6연승을 달렸다. 반면 NC는 5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SK는 수원 원정에서 kt를 3-2로 따돌렸다. 두산은 목동에서 9회초 김현수의 결승2점홈런으로 넥센을 7-5로 꺾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엑소 타오도 탈퇴 위기…SM 또 시험대

타오 부친, 건강걱정·SM에 서운함 토로
성명만 발표…마지막 협상가드는 남겨둬
SM "타오 아버지와 대화 통해 방향 모색"

엑소 타오(사진)의 탈퇴설로 SM엔터테인먼트(SM)가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두 멤버의 '탈퇴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던 SM은 또 한 번 위기극복의 '시험대'에 올랐다.

타오 아버지는 22일 중국 SNS를 통해 아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SM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며 타오를 엑소에서 탈퇴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SM은 이미 여러 방법으로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또 다시 타오의 탈퇴설이 나오면서 SM의 일련의 노력과 시도들이 무색해지고 있다.

SM은 중국의 대형기획사 미디어아시아그룹과 독점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어,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엑소, 에프엑스, 슈퍼주니어 등의 '관리'를 맡겼다. 또 루한을 출연시킨 콘텐트 제작사를 상대로 "불법적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해 압박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중국인 멤버 레이를 위해 1인 기획사인 '공작소'까지 만



타오

들어주면서 중국 내 개인활동을 지원하는 파격대우도 해줬다. 하지만 타오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레이와 같은 공작소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며 탈

퇴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나 눈여겨볼 점은 타오가 아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상 치료차 중국에 간 뒤, 현지에서 '탈퇴지'를 드러내는 건 크리스, 루한과 같은 패턴이지만, 앞서 두 멤버가 한국 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과 달리, 타오는 일종의 '성명만' 발표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건, SM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협상카드일수도 있다는 의미다. SM은 "타오 아버지와 대화 등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M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엑소는 영화촬영과 부상치료를 중국에 체류중인 레이, 타오를 제외하고 현재 8인조로 활동중이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편진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00660호(2015.3.26) [21789]

2형(유병자형)가입 시
**병이 있어도
약을 먹어도
수술 했어도
가입 OK되는 국내 최초의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OK암보험** (갱신형)

무늬만 암보험은 가라~
이제 가입 문턱을 낮춘 **암보험 탄생!**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유병자 전용 암보험

*2형(유병자형)가입시,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 제외

1형(표준체형) 15세~60세, 2형(유병자형) 30세~6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 각 400만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각 2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보장 개시일 이후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보장)

*보장개시일은 1형(표준체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2형(유병자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임.

*만기지급금 5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만기 생존시)

Cigna **라이나생명**

**40세 남자
월 27,300원
가입금액 1,000만원
2형(유병자형)
20세부터 70세**

구분	1형(표준체형)	2형(유병자형)
나이	나이	나이
30세	9,400원	11,000원
40세	13,900원	15,700원
50세	26,300원	20,900원

*기준: 가입금액 주계약 1,000만원, 전기간월납, 10년만기, 갱신형

구분	나이	이비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계약기간	나이	나이	나이	나이
1년	289,200원	13,600원	4.7%	
2년	578,400원	16,700원	28.9%	
3년	867,600원	262,400원	30.2%	
5년	1,446,000원	419,200원	29.0%	
10년	2,892,000원	500,000원	17.3%	

*기준: 가입금액 주계약 1,000만원, 전기간월납, 10년만기, 유병자형, 갱신형

*참고: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24시간 무휴상담센터

"지금 전화하세요!"
080-015-990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전기간 월납, 만기지급형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는 2형(유병자형) 가입 제외, 가입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구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림. 단, 신변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년도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익년 1월 1일 기준,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계약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2형(유병자형)의 경우 계약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임. *이 보험계약은 애급자보호법에 따라 애급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애급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